

건물 해체 허가 여부·감리 규정 준수 등 철거 조사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참사

오늘 오전 10시까지 사고 현장 통제…구조작업 진행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붕괴된 5층 상가 건물이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무너진 건축물에 공사 관계자 등이 매몰돼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추가 구조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로쪽으로 쏟아진 잔해물이 많아 도심 차량 통행 통제는 10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소방본부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축물 붕괴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방본부는 “오후 8시50분 현재 피해 현황은 사망 9명, 중상 8명 등 총 17명으로 확인됐다”며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은 더이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붕괴된 잔해 건물에서 추가 구조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명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건물 규모가 크고 철거 잔해가 많아서 제1 작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는 추가사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원들이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잔해물을 다 드러내고 있다”며 “무너진 건물 잔해가 도로쪽으로 상당량 쏟아져 차량 통제는 계속하며, 내일(10일) 오전까지 (통제를)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건물 양쪽에 2명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CCTV 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며 “대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 중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다. 공사 관계자들이 건물 붕괴 이후 현장을 떠

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사망자 대부분은 버스 뒷자리에서 발견됐으며 버스 운전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건물 철거 공사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함께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했다.

작년 5월 1일 시행된 이 법은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전과 밀양 화재 등 건축물 재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8년부터 수년간 준비해 이 법을 제정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건물을 철거할 때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법 조항을 보면 건물 관리자는 건물을 해체하는 경우 지자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500㎡나 건물 높이 12m가 안 되거나 3층 이하인 건물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해체 공사가 가능하다.

지자체는 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감리를 지정해야 한다. 감리는 건설 현장에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자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도 할 수 있다. 법에는 건물의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해체



9일 광주 동구 학동 건물붕괴 사고로 매몰됐다 꺼낸 시내버스가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하다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벌칙 조항도 있다.

광주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5층 상가 건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건물은 건축물

관리법 상 해체 시 허가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는 해당 건물에 대한 해체 작업 첫날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철거 작업자들이 건물 주변에 토산을 쌓아 그 위에 굴삭

기를 올려놓고 벽체 등을 조금씩 부숴가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다. 철거 관련 안전계획 등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광주·대구에 ‘달빛미술관’ 건립, 이견희 컬렉션 공유하자”

이병훈 국회의원, 예술문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주장

‘이견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삼성가 예술품’을 광주와 대구에 ‘달빛미술관’을 지어 영호남 지역이 함께 관리·전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부되는 만큼, 광주·대구의 ‘상생정신’에 맞게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특히 현재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 자칫 삼성가 예술품이 수도권에 수용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과도한 지역간 경쟁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광주·대구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은 삼성 이견희 회장의 별세 후 국가에 기증된 ‘이견희 컬렉션’ 활용방안과 관련 “광주와 대구가 연대해 각 지역에 ‘달빛미술관’을 건립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남부지역의 예술문화를 견인하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을 맺은 도시로서 이

미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대구 환자를 광주로 수용하여 치료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국가 광역철도망과 관련하여 광주와 대구를 동서로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교류를 토대로 광주와 대구 양쪽에 각각 ‘달빛 미술관’을 건립하고 삼성가의 예술품을 분리 수용하여 자유롭게 전시하고, 필요에 따라 교환 전시회를 갖는 등 신개념 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정책이 수도권에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지역의 소외와 공동화 현상은 지역 소외를 넘어서 지역 소멸의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최소한 문화 영역에 있어서라도 수도권 편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미술관들이 지역에 배치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수많은 관광객을 흡인한다는 것은 세

계적인 추세다. 스페인의 ‘빌바오미술관’이 대표적이며, 영국 리버풀의 테이트미술관, 게이츠헤드의 발틱현대미술관, 일본의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 등 수많은 미술관이 지역에 건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에 있어서 예술이 가진 창조적 힘은 물리적 자원을 집중한 기계적 힘보다 훨씬 큰 혁신의 에너지로 작동된다”고 주장하고 “삼성가의 기증을 통해 모처럼 얻은 문화적 기회가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견희 회장의 별세 후 삼성가가 정부에 기증한 작품들은 용인의 대규모 창고에 보관됐던 예술작품들로 이번에 국가에 귀속된 작품은 2만3000여 점이다. 이 중 정선의 인왕제세도, 고려 천수관을 보살도 등의 작품을 포함한 2만1600여점의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여인들과 향아리’, 이중섭의 ‘황소’ 등 근현대의 명작 1400여 점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일차적으로 인계받았다. 다른 작품들은 리움미술관으로 인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붕괴 참사 건물 철거 다단계 하도급 의혹

대형 참사로 이어진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공사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현장 수습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이어진 철거공사에 투입된 작업자 다수가 원청에서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물해체 작업에 투입됐다고 증언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열린 현장 브리핑에서 알려진 계약 구조와는 다른 내용이다.

당시 브리핑에서 자신을 ‘공사관계자’라고 밝힌 인물은 철거 직전 작업 내용을 설명하며 소속을 하청업체라고만 밝혔다.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

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시공사와 3개 철거업체만이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재하도급 여부 조사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현장에 기술안전정책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 등을 급파해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도 시정 차원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한다.이 사고는 이날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재건축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렸다. /연합뉴스

지분

부동산

삽니다

(주)오천. 010-3605-5000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1385호,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123호, 전라남도 공고 제2021-618호, 경상북도 공고 제2021-1231호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민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1.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목적

○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2.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가. 주민 열람

1. 열람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2. 열람 기간 및 장소 : '21.6.10. ~ 6.24.

○ 방문 열람

시 도	시군구명	열람장소	문의전화	이메일(온라인외전제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혁신담당관	053-803-6131	hatbit1@korea.kr
	중 구	기획예산실	053-661-2113	ks5555@korea.kr
	동 구	기획예산실	053-662-2113	lovelyguy382@korea.kr
	서 구	기획예산실	053-663-2114	carrack@korea.kr
	남 구	미래전략실	053-664-2292	jangm9285@korea.kr
	북 구	기획조정실	053-665-2114	cineguy@korea.kr
	수성구	기획예산실	053-666-2115	wjs1001@korea.kr
	달서구	기획조정실	053-667-2117	iny2817@korea.kr
	달성군	기획예산실	053-668-2112	lsk0745@korea.kr
	광주광역시	균형발전정책과	062-613-6192	pch8617@korea.kr
광주광역시	동 구	기획예산실	062-608-2253	sic97@korea.kr
	서 구	기획 예산	062-360-7038	msmohee3@korea.kr
	남 구	혁신정책과	062-607-2662	khk8378@korea.kr
	북 구	기획조정실	062-410-6049	sh7500@korea.kr
전라남도	광안구	기획조정실	062-960-8088	sjh4041@korea.kr
	전라남도	지역혁신실	061-286-7343	tszfe@korea.kr
	나주시	기획예산실	061-339-8233	short11@korea.kr
	영암군	지속가능경영기획실	061-380-3023	yeunro@korea.kr
	완주군	기획감사실	061-379-3201	jhnats82@korea.kr
	장성군	기획예산실	061-390-7349	ksn0713@korea.kr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	054-880-2139	odissey1@korea.kr
경상북도	구미시	기획예산과	054-480-6502	cucu05@korea.kr
	영천시	정책기획실	054-330-6047	lky0721@korea.kr
	경산시	기획예산과	053-810-5064	skkdho1@korea.kr
	고령군	기획감사실	054-950-6012	elin@korea.kr

○온라인 열람

-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 홈페이지) 등 공고시)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3. 열람 기간 : 2021. 6. 10. ~ 2021. 6. 24.

4. 의견제출 방법 : 소정의 비지 양식에 따라 작성후 관련 4개 시·도청 및 관련 시군·구청에 제출

69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북광주 525-3761

• 양 산 571-7658

• 용 봉 433-1503

•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부 225-6001

• 충 장 222-8171

• 남 구

• 남 부 673-6836

• 동 선 673-6836

• 진 월 671-7276

• 서 구

• 광 천 382-5788

• 서광주 369-1625

• 치 평 376-6511

• 화 정 369-1625

•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철 단 973-2900

• 광 산 944-0444

• 문 흥 266-1960

• 신 안 222-8171

• 오 치 266-7601

• 우 산 433-1503

• 동 명 222-9054

• 중 앙 222-9054

• 백 운 651-1833

• 송 하 675-6605

• 상 무 372-2352

• 운 천 376-7153

• 풍 암 603-0311

• 곡 959-1920

• 하 남 955-0451

공 고

광주가정법원 2021년단307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 망 박경아(1963. 8. 31. 생)

등록기준지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132번지

최 후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동7기반길 21 (본성동)

사 망 일 : 2020년 11월 27일

1. 위 피상속인의 일반상속재판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채권 또는 수증을 2021년 8월 14일 까지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정 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명선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생로 48 308호(미래타워)

신고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생로 48 308호(미래타워)

문의처 : 061-371-4800

2021년 6월 10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소 명 선

발행 및 정기구독, 정보통신망사업, 에-지(인터넷)사업 공고

(대한항공출판(주) (갑)과 신한랜드주식회사(을)은 2021년 5월 10 일 각각의 임시주주 총회에서 「갑」의 한(한)사업, 정보통신망사업, 에-지 사업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을」에게 할양하기로 하고 「갑」은 주식회사의 분할하는 자에게 「갑」의 권리 의무는 「을」에게 할양 승계하기로 합의 하였습니 다. 이에 따라광주사업, 정보통신망사업 , 에-지 사업 전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광역망 외곽지역 영도에 관한 사 항을 공고함으로써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공고 개 제 약일부터 1개월 이내 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행 영도지출 광주시사업, 정보통신망사업, 에-지 운영권한 기금, 소프트웨어사업

-한기공사(광주광역시) (제 전나-010333)

-정보통신망사업 등록번호 : (제 02019193)

-에-지(인터넷)사업 등록번호 : (제2019-100800)

-소프트웨어사업 : B20-1103974

2. 본발행 및 영도 예정일 : 2021년 7월 9일

3. 의견제출처 : 영도, 영도구 법원

2021년 6월 10일

발행권한인 영도인 "갑" 대한항공출판(주)주식회사(을)은 20011-0456081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자치로129 신한영도관리인 변호사 소명선 20011-0456081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자치로129 신한영도관리인 변호사 소명선 20011-0456081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자치로129 신한영도관리인 변호사 소명선

산행안내

6월13일(일)

▲광주kj산악회6월13일(일) 경남 남해&금산두도계곡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여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光州日報

세종

광교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방구독 220-0550